

관상동맥 우회술의 임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최영학, 이재필, 정원상, 지행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87년 5월부터 1993년 7월 까지 57명의 환자에서 복제정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남자 환자가 41명, 여자환자가 16명이었고 평균연령은 56.1세였다. 30명의 환자가 술전에 심근 경색증을 경험하였고, 26명은 불안정성 협심증이 있었다. 좌측 주 관상동맥질환이 6례였으며, 3지 장애, 2지 장애가 각각 15례, 26례였다. 술중 심근보호방법은 1991년까지는(29례) 심정지액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중등도 저체온하에 간헐적인 대동맥 차단방법을 사용하였다. 심근 허혈시간은 심정지액을 사용한 경우 혈관당 44.5분이었고, 간헐적 대동맥 차단방법은 16.5분 이었다. 한 환자당 이식혈관의 수는 2.6개였고, 19례에서는 Sequential bypass를 적용하였다.